

사설

종단 화합 신호탄 기대

월하 스님이 4일, 조계종 임시중앙 총회에서 2년여 만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재추대됐다. 방장추대건은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종단의 화합과 노스님의 참회문 발표 등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화회의를 이끈 월하 스님은 1999년은 종단의 내분과정에서 방장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또 최근까지 현 집행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각종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종단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준비해온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위시한 현 집행부의 노력은 노선사의 마음을 움직여 지난 8월 21일 "모든 책임은 노남에게 있다. 종단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으며, 노남의 문도와 총림대중도 노남의 심증을 헤아려 참회하고 있다"는 참회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종단의 가장 커다란 속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무상한 세상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은 실수를 아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율장에서

참회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주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것이 또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승가의 화합을 유지하는 첩경이기도 한 것이다.

98년 조계종 사태와 같은 폭력적 분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정승풍의 진작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화합을 위한 대승적 조치들이 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무원 집행부의 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성원을 보낸다.

사면 대상자들 역시 뼈를 깎는 자숙이 요구된다. 또한 각자의 이해가 달라도 종단문제를 세속법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차체에 완전히 없애지기를 고대해 본다. 분쟁이 생기면 율에 의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세속법에 의지해 종단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월하 스님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를 계기로 조계종이 안정과 화합 속에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옮겨 매듭지어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 사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군법당을 건립할 때 지휘관이 시주금을 받아 법당건립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을 개신교를 믿는 한 군인이 뇌물이라고 고고하여 종교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킨 것이 육군 101여단 김태복장군 시주금 뇌물사건의 본질이다. 그간 개신교를 믿는 항모 중령의 무고로 비롯된 수사를 진행해온 군 검찰에서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와 고등군사법원에 제소해 불구속기소를 당하고 군복을 벗은지 3년만에 지난 4일 대법원 판결에서 고등군사법원의 파기환송함으로써 김태복장군의 무죄가 일부 입증됐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이유는 김태복 장군이 불자여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신앙 행위가 다른 신앙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개인을 넘어 한 집단 또는 사회를 불신과 반목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김태복 장군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요, 불교계 전체의 명예도 일부나마 회복이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장성 전체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신앙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행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불자 지휘관은 '부모나 아내가 불교를 믿지 못'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불교라고 멋 멋이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타종교의 지휘관은 자기 종교의 행사참석에 적극적인 정도를 넘어 타종교를 믿는 부하까지 동원하는 판에 대부분의 불자 지휘관은 '종교문제는 중립'임을 말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또한 불자 지휘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교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교계 전체에서 도 군 포교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군 포교를 활성화해야만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굶뎠이 그 허를 찌고 한여름의 푸르름을 노래하는 매미가 되듯이 이 사건을 군포교 활성화의 대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월하스님 통도사 방장 재추대

조계종 총회 만장일치 결의... "종단 화합 전기"

주지엔 현문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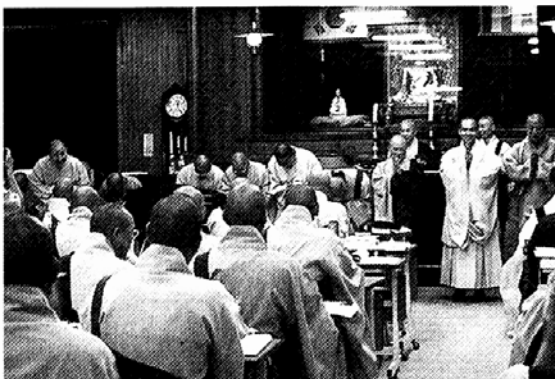
1998년의 조계종 분규사태와 관련 99년 1월 방장자격을 상실한 월하 스님이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재추대됐다.

98년 조계종 분규의 중심축이었던 정화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월하 스님의 통도사 방장추대는 98년 분규가 종식됐음을 의미하며 사면의 물꼬를 트는 종단 화합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도사가 한국불교 3대 총림 임에도 불구하고 분규로 인해 99년 총림이 해체되고, 방장이 공석인 상태에 처하면서 지속되던 내분은 해소되면서 통도사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개최한 제 151회 조계종 임시총회에 상정된 월하 스님 방장추대 건은 추대여부와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휴회를 거듭하며 전격 통과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중회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통도사 방장 추대 건이다. 3보 사찰중 하



주지 현문스님 등 통도사 스님들이 월하스님 방장 추대건이 통과되자 중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나인 통도사가 종점으로 돌아와 대중 화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회의원들에게 추대 결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중회에서 방장 추대 건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자 아직 계류 중인 법적 소송문제와 징계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휴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시간여의 휴회를 거쳐 다시 열린 중회에서 55년 정화대책위원회

비구측 대표 5명중 유일한 생존자인 월하 스님을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단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6일, 주지 직무 대행 현문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문 스님 통도사 주지임명은 방장 월하 스님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 김원우기자

승가대 정상화 '파란불'

추경예산 42억원 통과...안암학사 재계약

종범스님 총장복귀 시사

안암학사 임대계약과 재정확보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해 온 승가대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42억3천만원의 승가대 추경예산안이 중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학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총무원장을 대신해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승가대 교학국장 정대스님, 학생회장 일음스님, 총동문회장 원행스님은 6일 총무원에서 중회의장 지하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 측이 요구한 안암학사 재계약 등 4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안암학사 임대계약은 시설투자 및 임대금액, 변제 문제 등을 명확하게 명시

해 재계약 할 것 △승가대 총장, 총학생회장, 동문회장, 법인사 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수습대책위를 구성, 안암학사 문제 처리 △법인사무처 소임자 직위해제 및 학교 자체감사 실시 △학교주체성 확보 및 행정업무 자율성 보장 △학교 재정 즉각 집행 △영구적인 재정지원책 수립 등이다.

이에 따라 중회가 열린 4일부터 총무원 청사 앞과 중회 본회의장에서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던 승가대 학인 100여명은 6일 오후 해산했다.

한편 그동안 총장직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종범스님은 4일 학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인들의 의향을 고려하고 모든 분들의 뜻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며 학교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포교사단 지도자연수

15·16일 수덕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은 15-16일 이틀간 예산 수덕사에서 '포교사단 전국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각 지역 현안과 포교활동 사례

및 활동프로그램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생명사상과 포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포교 정책에 대한 이해, 각 지역별·팀별 활동 이해의 시간, 선무도, 포교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미륵산 케이블카

조계종 환경위 "반대 운동"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는 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의과대학도로 건설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환경위원회는 서울의과대학도로 건설로 인해 미타사 원각사 회통사 등 7개 사찰이 직접적인 환경 훼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조계종 사회부, 제25교구 봉선사, 의정부불교사업연합회를 중심으로 계획노선 주변의 사지 등 문화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정소송 등 노선 변경을 위한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찰 경내지의 훼손 및 오수 발생 등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고 결론짓고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합

조계종 행자교육원

21기 239명 입교

조계종 제21기 행자교육원이 4일 지지사에서 개원, 26일까지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4일 오후 대상자들을 소집, 신체검사 등 행자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갈마를 실시한 뒤 5일 아침 7시 고불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21기 행자교육원에는 남(男)행자 135명, 여(女)행자 104명 등 모두 239명이 입교했으며, 26일 회향식과 수료식을 봉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자들은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작법, 사미울의 등 9개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과 삼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이날 회향식에 맞춰 5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대해 수계식을 봉행한다. 한명우 기자

충청 본말사 주지 연수

조계종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가 교육원 주최로 6-7일 천안 주택은행연수원에서 열렸다.

모두 151명의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신도교육 및 모범사례 발표' '사찰환경' '사찰운영론' 등에 대한 강의와 지역불교 현

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종단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총무원, 포교원 관계자들이 참석, 참가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총무행정 및 신도교육에 대한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은 12-13일 송원리 조트에서 호남지역 본 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김영민

문화유산 新 수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성공개최기원

팔관회

9월 23일 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

동참방법

1. 팔관회 연등 접수(1등 10,000원) 각자의 소원을 담은 연등으로 해운대 백사장을 장엄
2. 호법광명등 접수(1등 100,000원 / 팜플렛에 소개)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불자 및 각계 지도자
3. 수륙고혼 천도제 접수(영가 1위 5,000원) 전통의식으로 수륙고혼 천도제 봉행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 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비의 쌀은 9월 23일(일) 오후 3시 "팔관회"가 열리는 "해운대 백사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관회(八關會)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 두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주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867-0501

후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부산불교신도회·부산불교실업인회·茶山日報·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MBC 부산문화방송·PSB부산방송·BBS 부산불교방송·부산불교텔레비전·대한불교신문외 교계 각 언론사